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6, Vol. 12, No. 2, 21~43.

## 대학생의 강자-약자와의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

조	혜	자	방	희	정 <sup>†</sup>	조	숙	자	김	현	정
	이	화	이	화	이				이	화	이
	사	회	심	리	학				사	회	심
	학	과	학	과	과				학	과	과
	연	구	연	구	연				연	구	연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경험하는 동일시, 고양과 비하,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IAT검사와 3가지 명시적인 검사(동일시 검사, RWA, RISC)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명시적, 암묵적으로 강자를 동일시하였으며, 강자와의 관계에 고양되며, 강자와의 관계에 진실을 연합하였다. 한편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강자와의 관계에 고양과 진실을 암묵적으로 연합하는 반응이 빨랐고, RWA 고집단 남성과 RWA 저집단 여성은 강자 동일시 반응이 빨랐으며, RWA 저집단과 RISC 고집단은 강자와의 관계에 진실, 약자와의 관계에 거짓을 연합하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의 구조, Tesser의 SEM 이론, 그리고 약자보호 관점의 인간관계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강자, 약자, 암묵적 연합검사, 권위주의, 관계적 자아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이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발달심리 연구팀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hjbang@ewha.ac.kr

타인과 연대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이다.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매기고, 자신의 역할을 규정해 나가며,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동일시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기를 확인한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의 정체성 뿐 아니라 미래의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도 더 지향하는 관계와 소속하고 싶은 범주들이 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타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이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고통과 비하,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암묵적인 수준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 강자-약자와의 관계

인간은 파워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공식적인 파워를 추구하는 동시에, 생활에서 작용하는 일상적인 파워를 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힘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개인이 경험하는 파워란 어떤 사람이 가진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특성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보다 힘 있는 강자와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지만, 자신보다 힘없는 약자와 있을 때에는 강자가 된다. 또한 파워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파워를 수용하며 응종가능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Raven(1993)은 파워를 가진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반응 즉 파워를 가진 사

람을 따르거나(toward), 피하거나(away from), 대항하는(against)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

파워는 사회에 기본적인 것으로서, 인간이 기울이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의 초석이 된다(Roberts, 2003). 최근 Keltner등(2003)은 파워의 접근/회피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파워는 행동의 접근/억제 시스템간의 활성화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것으로서, 행동체계는 보상이나 위협과 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만약 높은 파워를 가지게 되면 물질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 시스템이 활성화되지만, 파워가 없거나 낮을 때에는 사회적 물리적 위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억제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즉 사회는 파워지향적이기 때문에, 파워를 가진 강자는 타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파워가 없는 약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뿐 아니라, 사회적 물리적 위협에 따르는 제약을 인식하게 되어 타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정체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강자에게 보상을 받고 그의 접근 시스템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강자의 행위를 따라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사회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갈 수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

이기 때문에 자신을 강자와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정체성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소속되거나 동일시할 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에는 지위가 낮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집단을 선택하기 보다는 성공한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강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소속되거나 동일시할 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이다.

Turner(2005)는 인간관계에서만 출현하는 파워가 있다고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데, 혼자보다는 집단적으로 구현할수록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힘을 가진 집단이나 조직, 사회 속에 들어가 자기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단일화시키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파워를 가진 강자와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같은 집단에 소속하려는 경향이 무의식적 수준으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파워와 관련된 경향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Anderson과 Berdahl(2002)은 지배적인 특성이 높은 사람들이 파워에 더 민감하며, 접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파워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 지배적인 특성이 낮은 사람들은 억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태도의 표현을 억제하고 파워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자신이 강자의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 사람은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강자에게 동화효과를 나타내

지만, 자신이 강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졌다고 사람은 강자와 자신을 분리하거나 대비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은 약자관점을 취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강자에 대해 대비효과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비교과정 이론에 따르면(Mussweiler, 2003), 비교과정은 유사성 가정이나 비유사성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유사성 가정은 자아와 참조되는 기준이 비슷한 특성들을 가진다고 보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를 산출하지만 비유사성 가정으로 시작하면 자아와 기준이 다른 특성들이 활성화되어 대비효과(contrast effect)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Haines와 Kray(2005)는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통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자아와 파워를 연합시키고 있지만, 여성들 가운데도 파워를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자아와 파워를 연합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긍정성 경향과 더불어 파워의 의지가 있지만, 파워 추구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개인의 반응 역시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사회적인 파워는 없지만, 여러 가능성에 열려있는 대학생의 경우, 파워나 관계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강자와 약자를 동일시하거나 반응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고양과 비하

인간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있을 때 자

기 고양이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있을 때 자기 고양이가 일어나는가? Baumeister(1998)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동기와 자기 고양의 동기, 자기 일관성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자기 고양의 동기가 가장 강하고 자동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착각현상(positive illusion)으로 나타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Taylor & Brown, 1988). 사람들은 자기 고양의 동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을 과신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백에 보내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칭찬의 피드백에는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기억한다.

Tesser(1988)는 자기평가 유지이론(SEM, self-evaluation maintenance theory)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하나는 반영(reflection) 과정으로, 성공적인 타인과 자신을 연결시킴으로써 자존감과 인정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비교 과정으로, 자기보다 열등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수성을 확인하면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자신보다 월등한 사람과 있을 때에는 비교하면서 기분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영향은 낮은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의 성공보다는 타인의 성공을 보는 것을 선호하고, 비교과정은 가까운 관계를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Baumeister, 1998). 그러나 반영과 비교과정은 타인의 성취에 의해 개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반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즉 Tesser의 이론은 어떤 과정이 우선적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친밀한 타인이 우수할 때에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동일 영역에서의 상대의 성공은 비교과정에 의해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평가는 매우 계산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존감 유지를 위해 관계를 선택하면서 자아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괜찮아 보일만한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또는 비교하는 방략을 사용할 것이다. 백인 남성에 비해 돈을 적게 버는 소수집단이나 여성들은 자신을 백인과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보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rocker & Major, 1989).

그렇다면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부터 이러한 협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친밀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의미의 강자나 약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반영이나 동일시가 우선하여 강자에게는 고양, 약자에게는 비하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자기 평가가 요구되는 비교과정이 우선하여 약자에게는 고양, 강자에게는 비하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진실과 거짓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자아와 일치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특정 역할이나 상황은 자기표현을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다. 자기 제시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구성하고 인상관리를 하기 위해 전략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

다(Baumeister, 1998). 특히 자신을 잘 모르는 낮은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식적인 자기표현의 결과는 자신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내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란 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진정한 자신을 느끼는가이다. 진정성(authenticity)이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행동, 내적으로 초래되는 행동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고,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할 때 진정성을 느낀다. 이러한 것은 통합과 조직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fully functioning person)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사회 맥락적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역할 속에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진정성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거짓된 자신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진정성의 경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Anderson과 Berdahl(2002)은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있는 사람들은 진실한 태도를 더 많이 드러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지각하고, 인간관계에서 위협은 덜 지각하고, 이러한 효과는 파워에 대한 느낌에 의해 중재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약자보다는 강자와 함께 있을 때 진정성을 경험할 것이지만, 약자와 비교하여 자신을 상대적으로 강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강자보다는 약자와 있을 때 진정한 자

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상진(2000)은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의 하나로 '눈치'를 지적하고 있다. 눈치는 자아연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려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는 눈치를 보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신의 체면이나 인상관리, 평가의 염려, 그리고 부드럽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관계유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강자에게는 자신의 인상관리나 좋은 평가를 위해서, 약자에게는 배려와 관계유지를 위해서 진정한 자기를 감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에서 더 거짓된 자기를 경험하는 것일까?

한편 Harter(1997)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거짓 자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성들이 성장과정에서 독립성이나 논리적인 반응을 키워가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문제해결도 사적인 관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특히 발달과정에서 여성에게 제한된 파워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에 적응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로 변형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강자나 약자와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자아의 진정성이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 권위주의

일반적으로 파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적인 특성은 권위주의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일찍이 Fromm(1941)은 권위주의 성격은 인간을 상하관계의 계층에 놓고 우열을 가리며 강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하지만 약자에게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이후 Adorno 등(1950)도 권위주의 성격은 윗사람에 대한 복종, 아랫사람에 대한 가혹함, 그리고 권력과 지배를 중시하는 신념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최근에 Duncan등(1997)은 권위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파위의 위계로 조직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Altemeyer(1981; 1996)는 권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보수 권위주의 척도(RWA)를 개발하였다. 그는 보수 권위주의적 태도가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그 내용들을 척도에 담고 있다. 권위적 복종은 합법적 권위에 대한 강한 복종이며, 권위적 공격은 일반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를 받아들이므로써 외집단에 대해 적개심을 형성하는 것이며, 관례존중주의는 권위에 의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준, 전통을 강하게 따르는 것이다. 권위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권위주의자들이 편견이 심하며, 약자 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권위가 허용한다고 믿을 때 자기 정의에 의거해 공격적인 충동을 드러냄을 보여주었다(Altemeyer, 1988). 또한 권위주의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며, 정통 종교적 견해를 고수하면서 외집단에 대해 높은 편견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많고 자기 정당화를 하며, 자기 통찰력이 부족하여 완고한 태도와 편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Altemeyer,

1996). 한편 최근 Smith, DiTomaso, Farris, & Cordero(2002)는 권위주의자들에게서 외집단 편해보다는 내집단 편애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특히 높은 지위와 지배적이고 주류집단에 속할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유능함으로 대표되는 전형으로 생각하면서 내집단 편애현상이 강한 반면, 종속적이고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권위주의자들은 타 집단의 우수성을 과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들은 권위주의 점수가 높은 개인들은 파워위계를 더 많이 적용하고,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해 다른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 왔다. 그리고 실제로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파워위계에서 비롯된 인종, 성별과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파워의 차이가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편견의 근거가 되어 왔다. Duncan 등(1997)은 권위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헤게모니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Altemeyer(1988)도 권위주의가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권위주의는 파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 살아온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여 자신을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자, 약자에 대한 암묵적인 반응이 남녀의 권위주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것이다.

#### 관계적 자아

일반적으로 자아는 인간 행동의 조절자로서 한 사람의 독특한 능력과 태도로 생각되어 왔

지만, 문화심리학자들은 문화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Cross & Madson, 1997).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분리를 강조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계는 자아를 정의하는데 덜 중요하지만,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경계에 열려있고, 사회맥락과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 자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해석 양식은 자기고양과 자존감, 자기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지적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ss 등(2000)은 관계적 자아해석 검사(RISC)를 제작하였다.

관계적인 자아해석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더 나쁘게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녀 차이를 야기하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관계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반면, 남성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속감이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원천이라고 본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타인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것을 선호하면서, 과장하고, 자기 칭찬을 하며, 거짓 독특성 편향을 보이지만, 관계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보호하고 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본다.

앞서 보았듯이, Tesser(1988)는 타인이 자기보다 나은 수행을 보였을 때 긍정적인 감정과 자기 평가가 손상되고, 특히 비교대상이 친한 사람이며, 비교영역이 자아정의와 관련된 것

일 때 더 많은 손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자기평가는 자기 정의 영역에서 더 유능한 타인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거나 그 영역의 중요성을 줄임으로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Cross와 Madson(1997)은 거리두기 방략은 상호의존적이거나 관계적인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관계적인 사람에게 거리두기 방략은 타인의 월등한 수행 때문에 당하는 위협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관계가 위태로워짐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자아평가가 낮아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Gardner 등(2002)의 연구에서도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을 촉발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중요한 영역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쁜 수행을 보이고 자신은 집단구성원들보다 나은 수행을 보였을 때 덜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con(1996)의 연구에서도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과 독특성을 자기 고양의 기초로 삼지만 관계적인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유지가 자존감을 고양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위협받은 다음에도 파트너를 헐뜯지 않지만, 관계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헐뜯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SEM(자기평가 유지) 효과는 남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남자는 중요한 과제에서 자기보다 수행이 나쁜 아동과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부나 운동 등을 자기보다 잘하는 형제나 친구들에게서 거리두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자아해석 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Tesser, Campbell, & Smith, 1984). 결국 Tesser의 SEM이론의 반영과정과 비교과정이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과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에

게서 다르게 나타나고, 성별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문화와 관련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Heine 등(1999)은 일본인들은 타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고양이 일어나는 정도가 미국인에 비해 적으며, Chen 등(1998)은 중국인들 역시 내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미국인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즉 아시아 문화는 만성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강조해 왔고, 이러한 것이 확장된 자기개념에 반영되어 사회적 비교과정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Cross 등은 동아시아 문화의 집합주의적이고 일원론적 사고는 상호의존적 책임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돌봄이 개인의 선택이기 보다는 도덕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자아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양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문화적인 변화를 겪고 강하게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관계적 자아해석 양식에서 개인차가 클 것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서의 반응양식이 관계적 자아해석의 정도에 따라 다른지를 비교해 볼 것이다.

#### 암묵적 연합검사

강자나 약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변형하여 제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서 공감을 해주어야 윤리적인 것 같이 느껴진다. 전통적으로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태도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태도와 행동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음을 발견해 왔다. 특히 태도와 관련된 질문지들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 감시(self-monitoring)를 하게 만들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일차적인 태도를 알아내기 보다는 이후 의식적이고 통제적 과정을 거친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Fazio, Sabonmatsu, Powell & Kardes, 1986).

최근에는 암묵적 태도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의 개발로 명시적인 검사만으로 밝힐 수 없었던 고정관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암묵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태도를 측정해 낼 수 있게 되었다(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k & Mellott, 2002). IAT는 사회적 지식구조도 일반지식구조처럼 개념과 속성들이 연합강도를 가진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분법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게 하여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Greenwald 등(2000, 2002)은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타인의 범주와 쾌-불쾌 범주를 사용하여 연합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자기-타인 범주와 관련된 대명사들(I, me, mine/they, them, their)을 컴퓨터 상에서 분류하게 하고, 쾌-불쾌와 관련된 단어들(cheer, happy, peace/death, jail, sickness)을 분류하게 한 뒤, 이후 두 범주를 짝지어 분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기와 관련된 대명사를 쾌와 짝짓고 타인과 관련된 것을 불쾌와 짝지어 분류할 때에는 반응이 빠르지만, 자기 관련 대명사를 불쾌와 짝짓고 타인을 쾌와 짝지어 분류하는 경우 반응이 느렸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인 것과 연합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려 함을 보여 주었다.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긍정성 경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파워와 연결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Rudman 등(2001)은 IAT를 통해 여성들도 암묵적으로는 자신을 강함과 연합시키려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Haines와 Kray(2005)는 IAT를 통해 자아와 파워를 연합시키는 경향성은 남성에게서 높지만, 여성 가운데도 파워를 가진 여성은 그 연합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IAT 연구들은 명시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암묵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고정관념의 내용이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McConnell과 Leibold(2001)는 IAT를 통해 ‘흑인’은 ‘바람직하지 않음(undesirable)’과 연합되고 ‘백인’은 ‘바람직함(desirable)’과 연합됨을 밝혔으며, Nosek, Banaji, 및 Greenwald(2002)는 ‘남성’이 ‘수학’과 연합되고 ‘여성’은 ‘언어’와 연합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고정관념 연구들은 IAT가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서 반응하게 함으로써, 명시적인 검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사회적인 지식의 연합망 구조를 밝힐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IAT를 통해 ‘관계’와 ‘개인’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알아내기도 하였다(Cross 등, 2002; 방희정 등, 2005).

이와 같이 IAT는 명시적으로 알아내기 힘든 사회적 태도나 자동적인 반응 뿐 아니라, 사회적 지식구조 표상을 알아보는데 적용해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파워 지향성은 체면이나 인상관리 때문에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은 IAT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을 파워와 연결시키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면, 자신을 약자보다는 강자와 연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향성은 강자와 약자에 대한 암묵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AT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분법적인 범주들과 그에 속하는 제시 자극(특성들)을 구성해낼 수 있다면, 그 연합관계를 알아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인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합들을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명시적, 암묵적인 수준에서 강자와 동일시를 하는지, 아니면 약자와 동일시를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고양일 일어나는지, 아니면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지,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실된 자신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거짓된 자신을 경험하는지를 암묵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려고 시도되었다.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1-1. 대학생은 명시적인 수준에서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동일시할 것이다.

1-2. 명시적인 수준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강자에게 동일시할 것이다.

2-1. 대학생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동일시할 것이다.

2-2. 암묵적인 수준의 동일시 결과와 명시적인 동일시 결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3-1. 대학생은 ‘나와 강자’와 ‘고양’, ‘나와 약자’와 ‘비하’의 암묵적인 연합강도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강할 것이다.

3-2. ‘나와 강자’, ‘나와 약자’와 ‘고양’, ‘비하’의 암묵적 연합 강도는 명시적 검사의 고

저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4-1. 대학생은 '나와 강자'와 '진실', '나와 약자'와 '거짓'의 암묵적 연합 강도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강할 것이다

4-2. '나와 강자', '나와 약자'와 '진실', '거짓'의 암묵적 연합 강도는 명시적 검사의 고저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예비조사

명시적 검사와 암묵적 검사에 사용할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하였다. 110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맺고 있거나 혹은 가능한 모든 관계를 떠올리면서, 강자와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가능한 많이 기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인물범주(예. 깡패, 노숙자 등)를 제외하고 반응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대상들에 대해, 대학원생과 발달심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 연구팀이 범주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강자 10개, 약자 10개를 구성하였다.

### 연구 대상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20명(남 112 명, 여 108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 연구자료

#### 명시적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강자와

약자에게 얼마나 동일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강자와 약자 각각 10 사람들에 대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동일시,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심리적인 거리를 6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개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권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Altemeyer(1997)가 제작한 우익 권위주의 척도(RWA, Right Wing Authoritarianism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과정은 먼저 영어에 능숙한 심리학자가 RWA의 30문항을 번역하고, 심리학 박사 4인과 대학원생 8명이 각 문항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이 검사는 북미지역과 남아프리카, 서독, 호주, 이스라엘 등 여러나라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척도의 신뢰도 값(Chronbach-alpha)은 .80에서 .90이었으며(Martin, 2001),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한편 관계적 자아해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ss 등(2000)이 제작한 관계적 자아해석(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aint: RISC) 검사 11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번안과정은 RWA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Cross 등(2000)의 연구에서는 검사의 신뢰도 값(Chronbach  $\alpha$ )은 .88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 암묵적 태도검사(IAT)

연구를 위하여 세 가지 유형의 암묵적 태도 검사가 제작되었다. 각 검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주명과 그 특성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선택되었다. 첫 검사는 강자-약자에 대한 암묵적 동일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기를 강자와 연합시키는 반응이 빠르지 약자

와 연합시키는 반응이 빠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강자-약자 범주와 나-너 범주가 사용되었고, 강자-약자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위의 예비조사를 통해 선택된 인물명칭들이 사용되었으며, 나-너 범주와 관련하여서는 저자들의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두 번째 검사는 강자와의 관계에서 고양을 경험하는지 또는 비하를 경험하는지, 아니면 약자와의 관계에서 고양을 경험하는지 또는 비하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강자와의 관계-약자와의 관계 범주와 고양-비하 범주가 사용되었다. 강자와의 관계-약자와의 관계 범주의 단어들은 위와 검사 1과 동일하나, 이 검사에서는 참여자가 강자와의 관계나 약자와의 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나와 교수”, “나와 환자”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고양-비하와 관련된 단어들은 이전 연구(조혜자, 방희정, 2003)에서 조사한 형용사들과 동의어 사전을 참고하여 고양-비하와 관련된 단어들을 선택하였고, 이를 심리학 박사 4인과 대학원생 8인이 검토, 수정하였다.

검사 3은 강자와 있을 때 진실된 자기를 경험하는지 또는 거짓된 자기를 경험하는지, 아니면 약자와 있을 때 진실된 자기를 경험하는지 또는 거짓된 자기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강자와의 관계-약자와의 관계 범주와 진실-거짓 범주가 사용되었다. 진실-거짓 범주와 관련된 단어들은 검사 2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하였다. 검사에 쓰인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강자-약자 범주>

강자: 교수, 선배, 직장상사, 유능한 친구,

CEO, 아버지, 팀장, 선생님, 인기 연예인, 리더  
 약자: 동생, 후배, 무능한 친구, 노약자, 청소부, 아기, 환자, 어린이, 말단사원, 점원

<나-너 범주>

나: 나, 나의, 내것, 우리, 우리들, 나를, 우리것, 내가, 우리가, 우리를

너: 너, 너의, 네것, 너희, 너희들, 너를, 너희것, 네가, 너희가, 너희를

<고양-비하 범주>

고양: 의기양양한, 강해지는, 큰소리치는, 으스대는, 신나는, 기가 사는, 용감해지는, 주장하는, 기운나는, 사기충천한

비하: 기가 죽는, 비굴해지는, 소심해지는, 풀죽은, 약해지는, 숨죽이는, 잘못하는, 항복하는, 복종하는, 눈치보는

<진실-거짓 범주>

진실: 진짜의,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참된, 꾸밈없는, 본심의, 진심의, 드러내는, 마음속의, 진솔한

거짓: 가짜의, 내숭떠는, 가식적인, 속이는, -척하는, 꾸미는, 감추는, 숨기는, 위선적인, 가면 쓴

절차

참여자들은 먼저 명시적인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명시적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참여자들은 컴퓨터실로 옮겨가 컴퓨터를 통해 세 가지 IAT 검사에 참여하였다. IAT 검사는 Greenwald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었다. IAT 세 검사는 자극 단어만을 뿐 절차는 동일하다. 여기서는 검사 1만

을 설명하기로 한다. IAT는 5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서 피험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하나의 자극단어가 나타나면 그 자극이 컴퓨터 상단 왼쪽과 오른쪽 구석에 적혀 있는 범주명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키보드 상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S'키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IAT검사 1에서는 1단계에서 화면 가운데 나오는 자극단어가 '나'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왼쪽 키를, '너'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했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자극이 '강자'에 속하면 왼쪽 키를 '약자'에 속하면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했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나'이거나 '강자'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너'이거나 '약자'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4단계에서는 '약자'와 '강자'를 2단계와는 다른 반대쪽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다. 즉 '약자'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강자'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나'이거나 '약자'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이거나 '강자'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 4단계에서는 각각 20개의 자극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고, 3단계와 5단계에서는 40개의 자극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때 오류를 범하면 빨간 X 표가 화면 가운데 나오고 다시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검사 2와 3도 실시하였다. 세 가지 IAT검사의 제시 순서는 참여자마다 counterbalance 시켜 달리 제시함으로써 연습효과나 순서효과를 통제하였다. 실험은 실험 보조원들의 도움에 따라 진행되었다. IAT 검사는 연습시행까지 합쳐 평균 20분이 소요되었다.

## 결과처리

강자, 약자에 대한 명시적 동일시 검사는 참가자들이 각 인물들과 세 가지. 유형(성공/실패, 자화상, 심리적 거리)에서 동일시하는 정도를 6점 척도 상에서 반응한 것을 합쳐 계산하였고, 이를 남녀별로 비교하기 위해 MANOVA 분석을 하였고, 암묵적 검사의 결과와 상관을 보았다.

암묵적인 동일시와 고양-비하, 진실-거짓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IAT 검사의 종속 측정치는 각 검사의 3회기와 5회기에서의 반응시간으로서, 1/1000초 단위(ms)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각 개인의 3회기와 5회기 반응시간에는 컴퓨터 반응과 관련된 개인차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차를 없애고 집단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IAT 점수가 산출되었다. IAT점수는 Greenwald등(2003)이 최근에 보완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5회기-3회기)/SD 로 계산하여 산출했다, 따라서 IAT 점수가 높다는 것은 5회기의 반응이 3회기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수를 근거로 성별, RWA 고저집단, RISC 고저집단간 비교를 하였다. RWA와 RISC 고집단은 각 검사에서 상위 25%의 점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저집단은 하위 25%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다. 고저집단을 나눌 때에는 25% 경계선의 동일점수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분석 사례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한편 각 반응 중 각 자극 단어에 대해 3000ms이 넘는 반응과 300ms보다 빠른 반응은 Greenwald 등(2000)의 지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컴퓨터상의 오류로 반응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들이 제외되어, 각 검사의 분석 사례수는 동일하지 않다.

결 과

명시적인 강자/약자 동일시

명시적인 검사에서 남녀가 보여준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시하는 점수의 평균이 표 1에 나와 있다. MANOVA결과는 남녀모두 강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약자와 동일시하는 경향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210)=335.89, p<.000$ ), 성별에 따르는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F(1, 210)=.105, p>.10$ ), 성별과 동일시 유형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210)=6.21, p<.05$ ). 즉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더 강자동일시를 하고 약자 동일시를 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명시적인 강자 동일시와 약자 동일시 간의 상관관계를 내어본 결과,  $r=.555$ 로서, 유의미하였다. 즉 강자와 명시적으로 동일시하는 사람일수록 약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명시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성은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강자와 약

표 1. 명시적인 강자/약자 동일시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강자 동일시	약자 동일시
남성(108명)	3.05(.72)	2.37(.72)
여성(104명)	3.19(.64)	2.29(.55)
전체(212명)	3.12(.68)	2.34(.64)

자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암묵적인 강자/약자 동일시

암묵적 검사의 3회기의 자신을 강자와 연합하여 반응하는 시간과 5회기의 약자와 연합하여 반응하는 시간, 및 IAT점수(5회기-3회기)/SD의 평균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대학생들은 자신을 강자와 연합하는 반응시간이 약자와 연합하는 시간보다 유의미하게 빨랐고( $F(1, 210)=92.07, p<.000$ ),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210)=.385, p>.05$ ). 남녀의 IAT점수를 t 검증한 결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1, 210)=-.539, p>.05$ ). 이러한 결과는 암묵적으로는 남녀 대학생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강자에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RWA점수 상하 25%에 속하는 남녀(고저집단)의 IAT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RWA 고저집단의 주효과는 없었고( $F(3, 105)=.07, p>.05$ ), 성별 주효과도 없었지만( $F(3, 105)=.000, p>.10$ ), RWA 고저집단과 성별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3,105)=3.71, p<.05$ ). IAT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강자 동일시가 약자

표 2. 암묵적인 강자/약자 동일시 반응시간(msc)과 IAT 점수

성별	나-강자 / 너-약자	나-약자 / 너-강자	IAT점수
남성(108명)	1071.47(406.91)	1274.35(324.09)	.33(.39)
여성(104명)	1033.22(254.63)	1264.82(291.40)	.36(.36)
전체(212명)	1052.71(340.56)	1269.68(307.80)	.35(.38)

( )는 표준편차

표 3. RWA고저집단의 동일시 IAT점수

성별	RWA	IAT 점수	
남자(56명)	고 (31명)	.42	(.37)
	저 (25명)	.24	(.49)
여자(53명)	고 (28명)	.26	(.37)
	저 (25명)	.40	(.44)

동일시보다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성의 경우는 RWA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강자 동일시를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RWA 점수가 높은 여성은 강자 동일시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RWA 점수가 낮은 경우 강자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파워 위계에 예민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성들은 파워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강자와 동일시하지만, 여성들은 파워 위계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수용할수록 자신을 낮은 지위와 동일시함을 시사한다. 표 3은 RWA고저집단의 동일시 IAT 점수이다.

반면 RISC 고저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3, 111)=3.09, p>.05$ ), 또한 명시적인 강자 동일시와 약자동일시, IAT 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r=.04,$

$r=.005$ ).

‘나와 강자’, ‘나와 약자’와 ‘고양’, ‘비하’의 암묵적 연합

‘나와 강자’, ‘나와 약자’와 ‘고양’, ‘비하’를 연합시키는 시간과 IAT 점수 평균이 표 4에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나와 강자’와 ‘고양’, ‘나와 약자’와 ‘비하’(강-고/약-비)를 연합하는 반응이 빨랐고, ‘나와 강자’를 ‘비하’와, ‘나와 약자’를 ‘고양’(강-비/약-고)과 연합시키는 반응은 유의미하게 느렸다( $F(1, 214)=434.35, p<.000$ ).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에게서 차이가 있어, IAT점수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t(214)=-2.10, p<.05$ ), 이는 여성들의 강-고/약-비 반응이 강-비/약-고 반응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름을 의미한다.

한편 RWA와 RISC 고저 집단에 따르는 차이를 검증한 결과, RWA 고저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3, 111)=.53, p>.10$ ), RISC 고저집단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F(3,110)=.59, p>.10$ ). 암묵적 강자 동일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강자와의 관계를 고양이 연합하는지, 아니면 비하와 연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AT 동일시 점수에서 상하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동일시 집단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F(3, 106)=$

표 4. 강자-고양/약자-비하, 강자-비하/약자-고양의 반응시간(msc)과 IAT점수

성별	강-고/약-비	강-비/약-고	IAT점수
남성(111명)	962.38(302.89)	1343.50(293.66)	.56(.34)
여성(105명)	905.58(211.92)	1315.65(274.07)	.65(.28)
전체(216명)	934.77(263.57)	1329.96(283.99)	.60(.31)

( )는 표준편차

12.44,  $p < .001$ ), 성별 주효과도 나타났으나( $F(3, 106) = 5.16, p < .05$ ), 동일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F(3, 106) = .95, p > .10$ ). 즉 강자에게 암묵적으로 동일시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들일수록 강자와의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더 고양됨을 시사한다.

‘나와 강자’, ‘나와 약자’와 ‘진실’, ‘거짓’의 암묵적 연합

‘나와 강자’, ‘나와 약자’와 ‘진실’, ‘거짓’을 연합시키는 시간을 측정 한 결과, 전체적으로 강-진/약-거를 연합시키는 반응이 강-거/약-진 의 연합보다 유의미하게 빨랐다( $F(1, 214) = 5.08, p < .05$ ).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에게 .06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IAT점수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았다( $t(204) = -1.86, p = .06$ ). 즉 여성들이 ‘나와 강자-진실’과 ‘나와 약자-거짓’을 연합하는 반응이 ‘나와 약자-진실’과 ‘나와 강자-거짓’ 연합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랐다. 표 5는 강자-진실/약자거짓, 강자-거짓/약자-진실의 반응시간과 IAT 점수 이다.

한편 RWA 고저 집단에 따르는 IAT점수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RWA 고저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F(3, 109) = 5.03, p < .05$ ), 성별에 따르는 효과도 나타났지만( $F(3, 109) = 3.98, p < .05$ ), 고저집단과 성별과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3, 109) = .07, p > .10$ ). 즉 앞

표 6. RWA 고저집단의 강자, 약자에 대한 진실, 거짓의 IAT 점수

성별	RWA	IAT 점수	
남자(58명)	고 (33명)	.17	(.38)
	저 (25명)	.30	(.38)
여자(55명)	고 (28명)	.28	(.27)
	저 (27명)	.45	(.30)

( )는 표준편차

서도 지적했지만, 여성들의 IAT점수는 남성들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더 강자와의 관계에서 진실을, 약자와의 관계에서 거짓을 경험함을 시사한다. 또한 RWA 고집단의 IAT 점수가 RWA 저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강자나 약자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반응에 차이가 적는데 비해, 권위주의가 적은 사람들은 강자와는 진실을, 약자와는 거짓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표 6에서 보듯이 RWA점수가 높은 남성은 IAT점수가 가장 낮고, RWA점수가 낮은 여성은 IAT점수가 가장 높는데, 이는 권위주의적인 남성들은 강자나 약자에게 별 차이 없이 진실과 거짓을 경험하나, 권위주의를 덜 수용하는 여성의 경우 강자에게는 진실을, 약자에게는 거짓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표 6은 RWA 고저집단의 강자, 약자에 대한 진실, 거짓의 IAT 점수이다.

표 5. 강자-진실/약자거짓, 강자-거짓/약자-진실의 반응시간(msc)과 IAT 점수

성별	강-진/약-거	강-거/약-진	IAT점수
남성(110명)	1097.89(313.60)	1246.45(248.38)	.27(.39)
여성(106명)	1015.00(218.82)	1224.00(235.19)	.36(.30)
전체(216명)	1057.21(273.80)	1235.43(241.69)	.31(.35)

표 7. RISC 고저집단의 강자,약자에 대한 진실, 거짓의 IAT 점수

성별	RISC	IAT 점수	
남자(58명)	고 (30명)	.35	(.38)
	저 (28명)	.14	(.41)
여자(58명)	고 (24명)	.37	(.27)
	저 (34명)	.32	(.30)

( )는 표준편차

또한 관계적인 성향의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RISC 고저집단에 따르는 IAT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RISC 고저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으나( $F(3,112)=4.08, p<.05$ ), 성별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3,112)=2.302, p>.10$ ). 즉 남녀에 상관없이 RISC 고집단의 IAT점수가 저집단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관계적인 사람들은 강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진실을, 약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거짓을 경험함을 나타낸다. 이는 관계적인 사람들이 약자와의 관계에서 관계유지를 위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7은 RISC 고저집단의 강자, 약자에 대한 진실, 거짓의 IAT 점수이다.

IAT 동일시 점수에서 상하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동일시 집단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F(3, 101)=17.65, p<.001$ ), 성별 효과는 없었다( $F(3, 101)=1.02, p>.10$ ). 즉 강자에게 암묵적으로 동일시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강자와 함께 있을 때 더 진실을 경험하고, 약자에게는 거짓을 경험하며, 약자에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낮은 것이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를 하고, 자신을 어떤 집단에 넣으려고 하는지, 또한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고양과 비하, 진실과 거짓을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알아보았다.

### 강자 동일시

명시적 검사와 암묵적 검사 모두에서 성별과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모두 자신을 강자에게 동일시하고, 자신을 강자 집단에 넣고 보려는 경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가 열려있는 대학생들이 강자 집단에 속하려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자가 되고, 파워를 갖기 원하는 것은 파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물질적 자원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 결과와 암묵적인 결과 간에는 아무런 상관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의식적 수준의 태도와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처리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암묵적인 강자 동일시 현상은 RWA 고저집단과 성별 간에 상호작용을 보였는데, 이는 보수 권위주의의 구조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Altemeyer(1988)는 보수 권위주의란 세상을 파워의 위계로 보고,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



라고 보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RWA 고집단의 경우, IAT 동일시검사에서 남성은 자신을 강자와 연합하는 경향성이 빠르지만, 여성은 느리게 나온 반면, RWA 저집단의 경우, 남성은 강자와 연합하는 반응이 느리지만, 여성은 강자와 연합하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를 수용하는 남성은 자신이 파워를 가진 집단에 속하고 있음을 암묵적인 수준에서부터 인식하고 있고, 반면 권위주의를 수용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파워를 갖지 못한 집단이라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권위주의를 수용하는 남성들은 자신을 강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동일시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강자와 자신을 유사하지 않은 존재로 보면서 자신을 강자와 대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권위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남성들은 자신을 강자집단과 덜 연결시키고 강자 동일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인 수준에서부터 반대하면서 자신들을 약자집단이 아니라 강자집단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양과 비하

남녀 대학생들은 강자와의 관계를 고양이와 연결시키고, 약자와의 관계를 비하와 연결시켰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에게서 더 강했고, 강자를 동일시할수록 강했다. 강자와 함께 있을 때 자기 고양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타인과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경험하는 자기 긍정성 효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Baumeister(1998)는 인간의 자기 긍정성은 강하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고양은 자동적으

로 일어나지만, 자기 평가는 통제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이론 틀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 긍정성 경향으로 인해 약자보다는 강자를 선호하고 강자와 함께 할 때 자기 고양을 일어날 수 있다. 이 입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강자와의 관계를 자기 고양과 연합하는 반응이 빠른 것은 자동적인 자기 긍정성 때문에 나타난 반응으로 볼 수 있고, 강자와의 관계와 자기 비하와의 연합이 느린 것은 비하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해야 하는 통제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 틀로는 약자와의 관계에서 고양보다는 비하가 자동적으로 연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기 긍정성 관점에서 보자면, 약자와의 관계에서도 비교과정을 통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연합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약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고양을 일어나려면, 자기 평가나 비교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Tesser(1988)의 SEM이론은 강자와의 관계를 고양이와, 약자와의 관계를 비하와 연결시키는 현상을 더 잘 설명해 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반영과정이 일어나면, 강자와의 관계는 고양이와 연합되고 약자와의 관계는 비하와 연합되지만, 비교과정이 일어나면, 강자와의 관계는 비하와, 약자와의 관계는 고양이와 연합된다. 본 연구 결과는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는 비교과정보다는 반영과정이 일어나, 강자와의 관계에서는 고양이, 약자와의 관계에서는 비하가 연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비교과정보다는 반영과정에 의해 고양이와 비하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신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에 맞추어 자신을 변형하고 적응해 가는 기제가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Heine등(1999)이나 Chen등(1998)이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이나 중국인들은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고양이가 일어나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집단 연대감을 통해 고양이가 일어난다고 지적한 것과 비슷한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Tesser등(1984)의 지적처럼 여성들이 보다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반영과정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강자-약자에 대한 고양-비하의 연합이 RISC 고저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Cross등(1997)이나 Gardner 등(2002), Bacon(1996)의 지적과는 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왜 그들의 입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 문화 안에서는 관계적 자아해석 점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계 중심적 이어서, 암묵적인 수준에서부터 관계에 따라 자신을 맞추어 가기 때문에 나온 현상일 수 있다. 최상진(2000)은 한국인의 사회심리로 눈치와 체면을 꼽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타인 의식적인 태도가 거의 모든 한국인들에게 내재하여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능성은 강자와의 관계에서는 고양, 약자와의 관계에서는 비하가 경험되는 현상은 개인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대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촉발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전 연구들은 명시적인 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비교과정이 개입되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의식적인

비교과정이 배제된 자동적인 과정을 측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참여자들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강자와 약자를 실제 인물로 생각하지 않고, 추상수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비교과정이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더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로 남는다.

### 진실과 거짓

대학생들은 강자와의 관계를 진실과 연합하며, 약자와의 관계를 거짓과 연합하였고,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강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인상관리를 하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결과이다. Anderson과 Berdahl(2002)은 자원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있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자신의 진실한 태도를 더 많이 드러낸다고 밝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강자와의 관계를 진실과 더 연합하는 경향성은 강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왜곡되지 않고 당당하며 진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진실을 경험하는 현상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강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강자와의 관계에서 당당하고 진실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이유는 강자에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일수록 강자와의 관계를 진실과 더 연합하는 결과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또한 이 결과는 사람들이 약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말하거나 진실한 태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암묵적인 수준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상대방의 속성에 따라 자신의 관계방략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자, 약자와의 관계를 진실, 거짓과 연합하는 경향성은 개인특성들에 따라 차이를 보여, RWA 고집단은 강자, 약자에 대한 진실과 거짓의 연합반응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보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강자와 약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약자와의 관계를 진실과 더 연합하는 경우로, 권위주의자들이 약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강자와의 관계를 거짓과 연합하는 경향성으로, 권위주의자들이 강자와의 관계에서 더 눈치를 보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이 연합하여 차이를 좁혔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RWA 저집단은 강자와의 관계에 진실을, 약자와의 관계에 거짓을 연합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자의 눈치를 덜 보며, 약자 보호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한편 RISC 고집단과 저집단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관계적인 사람들이 강자와의 관계에 진실을, 약자와의 관계에 거짓을 더 강하게 연합하고 있다. 이는 관계적인 사람들의 암묵적인 인간관계 방략이 강자에게는 오히려 솔직하지만, 약자에게는 그들 편에 서서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관계를 유지함을 시사한다.

고양과 비하에서는 RISC 고저 집단간에 차

이가 없었는데, 진실과 거짓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통해 우리는 관계적인 한국 대학생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강자나 약자와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은 대부분 상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양되고 비하하는 경험을 하지만, 관계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대하는 인간관계 방략을 달리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관계적인 사람일수록 약자와의 관계에서 더 자기 통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 따라 가장 초기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냄으로써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표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인 검사들과 더불어 세 가지 IAT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암묵적인 수준에서부터 강자에게 동일시를 하고 강자와의 관계에서 고양이 되며, 더 진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과 권위주의, 관계적 자아해석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실에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의 범위가 한정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 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이후 연구들에서는 긍정적인 강자, 부정적인 강자, 친밀한 강자 등 다양한 관계들을 나누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 형용사와 개념들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단어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었고, 충분한 연습으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AT검사는 5단계로 이루어져, 1, 2, 4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측정치는 3, 5단계의 반응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 보이는 반응의 개인차는 5회기에서 3회기를 뺀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IAT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반적인 IAT 검사들이 자존감이나 고정관념에 한정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자, 약자와의 관계의 표상을 알아내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자극재료는 단순 범주가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범주(예. 나와 교수)가 사용되었고,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기 위한 범주명(예. 강자와의 관계/약자와의 관계)도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대학생들은 검사이후에 구두 질문을 했을 때, 자기들은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범주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자기들의 실제 관계를 떠올리며 범주화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합개념들에 대한 범주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 방법은 앞으로 더 검증되어야 하고 세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IAT를 사용하여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서 암묵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동일시, 고양과 비하, 진실과 거짓의 반응들을 알아냄으로써, 후속 연구문제들을 탐색하고 이론을 검증하며, IAT 방법을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방희정,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5). 한국 남녀 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의 암묵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89-209.
- 조혜자, 방희정 (2003).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01- 122.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Altemeyer, 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Canada: U. of Manitoba Press.
- Altemeyer, B. (1988). *Enemies of freedom: Understan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an Francisco: Jossey-Bass.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 Press.
- Anderson, C., & Berdahl, J. L. (2002). The experience of power: Examining the effects of power on approach and inhibition tende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62-1377.
- Bacon, P. L. (1996). The impact of th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on downward compari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
-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680-740)*. NY: McGraw Hill.
- Chen, Y., Brockner, J., & Katz, T. (1998).

- Toward an explanation of cultural differences in in-group favoritism: The role of individual versus collective pr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490-1502.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 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Duncan, L. E., Peterson, B. E., & Winter, D. G.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s: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 41-49.
- Fromm, E. (1941). *Escape from freedom*. (지정자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서울: 홍신문화사.)
- Gardner, W. L., Gabries, S., & Hochschild, L. (2002). When you and I are “we”, you are not threatening: The role of self-expansion in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39-251.
- Greenwald, A. G., Banaji, M., R., & Nosek, B., A.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5(2), 197-216
- Greenwald, A.,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 1022-1038.
- Greenwald, A., Banaji, M., Rudman, L., Farnham, S., Nosek, B., & Mellott, D.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Haines, E., & Kray, L. J. (2005). Self-power associations: The possession of power impacts women's self-concep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643-662.
- Harter, S. (1998). The personal self in social context: Barriers to authenticity. In R. Ashmore & L. Jussim (Eds.). *Self and identity*, 81-105. NY: Oxford.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Keltner, D., Gruengeld, D. H., & Anderson, D. (2003). *Power, approach, and inhibition*. *Psychological Review*, 110, 265-284.
- McConnell, A. R., & Leibold, J. M. (2001). Relations amo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discriminatory behavior, and explicit measures of racial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435-442.
- Martin, J. L. (2001).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50 years later: What lessons are there for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22(1), 1-26.
- Mussweiler, T.(2003). Comparison processes in social judgment: Mechanisms and consequences. *Psychological Review*, 110, 472-489.
- Nosek, B.A., Banaji, M. R., & Greenwald, A. G. (2002). Math=male, me=female, therefore

- math  $\neq$  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 44-59.
- Raven, B. (1993). The bases of power: Origins and recent develop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49(4), 227-251.
- Roberts, A. (2003). *Hitler and Churchill: Secrets of leadership*. London: Weidengeld & Nicolson.
- Rudman, L., Greenwald, A., & Ma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64-1178.
- Smith, D. R., DiTomaso, N., & Farris, G. F. (2002). Favoritism, bias, and error in performance rating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effects of power, status, and numbers. *Sex Roles*, 45(5/6), 337-358.
- Taylor, S. E., & Brown, J. D. (1988). *Positive illusions: Creative self-deception and the healthy mind*. NY: Basic Books.
- Tessl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181-22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urner, J. (2005). Explaining the nature of power: A three-process the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1-22.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1. 19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3. 15

## Implicit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 with the Powerful and the Powerless Oth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Hyeja Cho   Hee Jeong Bang   Sook Ja Cho   Hyun 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college students' implicit identification with others powerful or powerless, and implicit association of self-enhancement & authenticity with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powerful or powerless. The study was based on measuring 3 sorts of IAT: an explicit identification test, RWA, & RISC. The results were summed up as follows: Students identified their selves with others more powerful than others powerless; expressed self-enhancement when they were with powerful others; and associated 'true' with relationship with others powerful. Men with high RWA & women with low RWA identified their selves more with others powerful; low RWA & high RISC groups' associated relationship with others powerful to 'true' and others powerless to 'false' more rapidly.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tructure of authoritarianism, SEM, relationship with others powerful and powerless.

*key words* : *powerful other, powerless other, Implicit Association Test, Right Wing Authoritarianism Scal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ct*